

# 공공재개발 좌초 위기서 기사회생... 흑석2구역 등 '들썩'

시범 사업 포기서 참여로 선회  
SH 제안한 용적률 600% 검토  
봉천13구역 등 설명회 준비  
해당 지역 아파트 호가 상승

서울 흑석2구역 등 공공재개발 시범 사업 구역이 사업 포기에서 참여로 방향을 바꾸자 해당 구역 인근 아파트 가격이 들썩이고 있다.

23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흑석2구역은 지정 사업자인 서울주택공사(SH)와 조율을 통해 추진위가 제안한 원안대로 사업성 검토를 진행한다. 당초 국토부는 흑석2구역에 용적률 450%, 층수 35~50층을 통한 1310가구를 짓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추진위원회의 반발로 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공동시행을 맡게될 SH가 제안한 용적률 600%, 층수 상한 50층을 기본으로 한 정비계획을 바탕으로 사업성 검토에 들어갔다.

봉천13구역은 지난 16일 공공재개발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지역 중 하나인 서울시 동작구 흑석2구역.

/뉴스

사업 추진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열었다. 설명회에 참석한 주민들은 현재 제시된 400% 용적률 상향을 요구하며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후 서울시와의 협의를 마친 뒤 2차 주민 설명회를 열 계획이다. 일부 상가 소유자가 개발을 반대했던 강북5구역도 오는 4~5월 설명회를 앞두

고 있다. 강북5구역은 상업지구로 분석되지만 상가비율은 20% 미만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재개발 순항 소식에 해당 구역 인근 아파트 가격 호가가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흑석한강푸르지오(전용면적 84㎡)는 16억원에 매물이 나왔다. 이 면적형은 지난달 15억원에 팔린 바

있다. 롯데캐슬에듀포레(전용면적 59㎡)는 14억5000만원에 매물이 나왔으며 아크로리버하임은 매물이 소진됐다. 이 아파트는 전용면적 85㎡가 지난달 21억2000만원에 팔리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현지 부동산 중개업자에 따르면 관악푸르지오는 전용면적 59㎡가 9억원에 매물이 나왔다. 이 면적형은 지난달 평균 8억원대에 거래가 되곤 했다. 성북구 장위동 꿈의숲아이파크는 전용면적 59㎡가 10억원을 돌파한 12억원에 매물이 나왔다.

현재 공공재개발 공모를 신청한 70곳 중 시범사업지로는 ▲흑석2구역(270가구) ▲양평13구역(618가구) ▲양평14구역(118가구) ▲응우1-6구역(919가구) ▲신설1구역(279가구) ▲봉천13구역(357가구) ▲신문로2-12구역(242가구) ▲강북5구역(680가구) 8곳이 선정됐다. 나머지 62곳(전체의 88.5%)은 선정되지 못했다.

공공재개발을 신청했어도 요건이 부

족해 '재검토 대상지'로 선정된 지역으로는 ▲중랑구 면목동 527번지 일대 ▲성북구 장위11구역 ▲장위12구역 ▲성북5구역 ▲삼선3구역 ▲양천구 신월 7동 1구역 ▲영등포구 당산동6가 ▲대림3동 ▲신길6구역 ▲강동구 고덕1구역으로 총 10곳이 있다.

공공재개발 사업지가 되려면 크게 두 가지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첫 번째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계법령과 함께 '202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등을 충족해야 하며 두 번째는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대상 제외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서울시 정책상 도시관리(특별경관지구 등), 보존계획(역사문화보존 등)에 따라 관리 또는 보존이 필요한 구역은 제외 대상이다.

또한 도시재생사업 추진지역 또는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예정지역, 기존 도시건축 혁신방안 진행 및 완료구역도 제외된다.

/정연우 기자 ywj964@metroseoul.co.kr

## 좌석 떼고 화물 실은 항공사... 수익은 '글썩'

대한항공·아시아나, 화물기로 개조  
화물 수익 전년보다 늘었지만  
전체 매출 큰폭 줄어 영향 미미  
개조 화물기 양사 합쳐 6대 불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여객기를 화물기로 개조해 수익을 확보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지만, 사실상 큰 수익은 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도 경영 실적에서 선방했다. 대한항공은 별도 재무제표 기준 연간 실적에서 영업이익이 2383억원을 내며 흑자를 기록했다. 아시아나도 분기 실적 기준 지난해 2분기부터 3분기 연속 흑자를 냈다. 아시아나는 지난해 4분기 직전 분기(58억원) 대비 약 193% 늘어난 영업이익이 170억원을 냈다.

특히 화물 부문에서 양사는 전년 대비 큰 수익을 거두고 있다. 대한항공은 지난해 연간 기준 화물 매출 4조2507억원으로 전년(2조5575억원) 대비 66% 증가했다. 코로나 진단키트와 자동차 부품 수요가 증가했고, 일부 해운수송



(왼쪽부터)대한항공 화물기와 아시아나항공 화물기.

/각사

수요가 항공수송으로 전환한 것이 배경이 됐다. 대한항공은 기존 23대의 대형 화물기 기단을 활용해 가동률을 전년 대비 25% 높였다.

아시아나도 지난해 화물 수송을 적극 확대해 전년 대비 화물 매출이 64% 증가했다. 또, 지역별 화물 운송 분석을 통해 미주, 유럽, 동남아 지역으로 IT, 의약품, 개인보호장비 등을 적극 운송해 매출 2조1432억원을 기록하며 화물 부문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

하지만 양사는 이 같은 화물 부문의 호조세에도 사실상 코로나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에 따른 경영난이 이어지

고 있다. 코로나 여파를 고려했을 때 흑자를 내며 '선방'했을 뿐 전년보다 전체 매출이 대폭 줄어든 것이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각각 지난해 연간 매출은 7조4050억원, 3조5599억원으로 전년 대비 40%씩 감소했다.

양사는 화물 부문 공급에 집중하기 위해 여객기를 화물기로 개조하는 시도도 했지만, 이마저도 수익은 크지 않았다. 전 세계 항공사가 여객 대신 화물 시장에 주력해 공급이 대폭 늘어난 만큼, 개조한 여객기까지 투입할 정도의 수요는 되지 않고 있다는 분석이다. 현재 대한항공은 B777-300 항공기 2대, 아시

아나는 최근 2대를 추가로 개조해 A350-900 항공기 4대 등 양사가 운영 중인 개조 여객기는 단 6대뿐이다.

아울러 국내 저비용항공사(LCC) 가운데 유일하게 여객기를 화물기로 개조했던 진에어도 현재는 이를 운영하지 않고 있다. 앞서 진에어는 지난해 10월 LCC 최초로 인천-방콕 노선에 B777-200ER 여객기를 개조한 화물 전용기 1대를 주 2회 일정으로 운항한 바 있다.

하지만 현재 진에어는 해당 개조 항공기를 다시 화물 전용기가 아닌 여객기로 활용 중이다. 화물 전용기로 여객기를 운용하는 방법보다 '카고 시트백'을 활용해 여객기를 운항하는 것이 더 수익이 나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카고 시트백은 기내 좌석에 짐을 실을 수 있도록 특별 제작된 화물 전용 가방을 지칭한다.

카고 시트백을 모두 활용해 여객기를 띄우면 화물 수송량이 화물 전용기와 비슷한 수준이 된다. 이에 따라 진에어는 해당 항공기를 3월 말부터 주중에는 화물기, 주말에는 국내선 대상 여객기로 운항해 기재를 극대화할 예정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화물기로 개조한 여객기가 큰 수익을 내지는 않는다. 하지만 도움이 되는 것은 맞다"라고 말했다. /김수지 기자 sjkim2935@

## “전금법은 빅브라더법” 이주열, 은성수에 반박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을 놓고 금융당국과 중앙은행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소위 '빅브라더(사회통제)' 비판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지나친 과장이라고 반박하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정면으로 재반박했다. 여기에 금융통화위원회도 전금법에서 '빅브라더' 논란을 일으킨 부분은 보류해야 한다는 공식 입장을 내놓으며 한은에 힘을 실어줬다.

이 총재는 23일 임시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통신사라 하더라도 여러 통신사가 갖고 있는 기록을 강제적으로 한 곳에 모아놓고 그 곳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하는 것 자체는 빅브라더"라며 "(고객정보를) 모아 놓고, 볼 수 있는 것 자체가 빅브라더 문제에서 피할 수 없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은 위원장이 지난 19일 빅브라더 논란과 관련해 "전통통화 기록이 통신사에 남는다고 통신사를 빅브라더라고 할 수 있느냐. 개정안이 빅브라더법이라는 한은의 주장은 오해"라고 발언한 것에 대한 재반박인 셈이다.

전금법 개정안에서 논란이 된 부분은 전자지급거래 청산기관을 통해 빅테크의 외부 청산을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청산기관에 대한 허가, 감독 권한은 금융위가 갖는다.

이대로 통과된다면 빅테크 업체들은 고객의 모든 전자지급거래 정보를 금융결제원에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고, 금융위는 별다른 제한없이 해당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된다.

/안상미 기자 smahn1@

## ‘미래사업 선점’... SK네트웍스, 美 무인매장 스타트업 투자

휴스턴 대학 등에 공식 매장 보유  
스탠더드 코그니션에 277억 투자

SK네트웍스가 무인매장 솔루션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했다.

SK네트웍스는 미국 스탠더드 코그니션에 2500만달러(한화 약 277억원)를 투자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투자는 스탠더드 코그니션이 조성한 시리즈 C 라운드 1억5000만달러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소프

트뱅크 비전펀드도 리드 투자자로 동참했다.

스탠더드 코그니션은 인공지능(AI) 기반 컴퓨터 비전을 이용한 무인 자동결제 솔루션을 개발하는 스타트업이다. 최근 편의점 브랜드 서울 K와 컴퍼스 그룹과 협력해 미국 휴스턴 대학 등에 공식 매장을 선보이기도 했다.

스탠더드 코그니션은 이번 투자자금 유치를 통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 글로벌 고객들과 협력해 5년내 5만개 이

상 무인 매장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조던 피셔 스탠더드 공동창업자 겸 CEO는 "아마존, 월마트와 같은 기업과의 경쟁에 코로나 19 상황이 더해져 세계 각지의 소매업계는 수십년 새 유래 없었던 폭풍기를 겪고 있다"며 "스탠더드의 AI 기반 솔루션은 기존 매장에 쉽고 빠르게 설치해 무인 자동결제를 적용해주는 솔루션으로, 고객에게 언택트 시대에 맞는 혁신적 쇼핑 경험을 제공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용 기자 juk@